

## 남태평양 섬나라 필리핀 선교 소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마태복음13:44)

필리핀의 도시 빈민가 교회 개척 사역에 사랑과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 \* 부활절 대전도 집회



카톨릭이 국교인 이곳은 곳곳의 성당에서 거리에서 죄를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에 7시간

을 맨발로 걷고 또 앙겔레스에서는 큰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연출이 해마다 열리고 있지만 이 백성들은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2천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계란과 선물들을 나누어 주며 7개 사역지에서 7백명 이상의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부활의 권능을 믿어라'라는 제목으로 고전15:16-20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대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 \* 지도자 씨실의 죽음과 죠셉의 죽음

씨실(34세)은 빈민촌 시추 따팡의 가장 충성된 지도자입니다. 남쪽 모슬렘지역인 민다나오에서 믿음으로 이곳에 이사와서 어린이 사역과 맘 성경공부를 이끌며 언제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리아와 같은 자매인데 발견하여 단 3일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날 아침 기도 가운데 가장 충성되고 믿음 깊은 어린양이라는 깨달았으며 안타깝고

슬프지만 남편 롬멜과 두 아들 골드윈디(6세), 골드윈(4세)을 천국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였습니다.

연이어 1년 이상 간암으로 고생하던 죠

셉(46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두들 비통하고 애절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고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들은 오늘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기도를 드립니다.

### \* 지진

4월22일 월요일 오후2시경에 루손지역에 6.1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건물들이 갈라지고 정전이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도 6.0 이상의 강진과 진원 깊이 20km로 진앙지 수빅에서 60km 떨어진 저희 지역에서 진동으로 인하여 사무실에서 뛰쳐나오고 집이 흔들리는 여진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계속되는 마약과 폭행, 강력범죄로 사악하고 메마른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 선거열풍

필리핀의 인구는 1억840만명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고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살인적인 더위로 여름 방학 중인데 5월13일의 선거일로 인하여 예배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시장, 바랑가이 리더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고 3년 마다 하는 선거의





열풍이 대단하며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를 뽑기 위하여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고향으로 갑니다.

**\* 마이클의 휠체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걸어볼 수 있다면... 뇌성마비 장애아로 태어난 마이클(5세)은 4남중에 3남인데 휠체어가 없어서 늘 고장난 유모차에 얹혀서 엄마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했는데 이번에 대사관의 휠체어 나눔 행사에 소개되어 꿈에 그리던 휠체어를 선물로 받게 되어 온 가족이 기뻐하고 고난중에서도 아름답게 자라서 온 가족이 주님의 믿음 가운데서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어머니 날 행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입니다. 이곳 필리핀의 모계 사회에서의 어머니의 위치와 중심은 대단합니다. 5월15일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잠언 30"11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축복된 어머니'는 가정에서 선생님, 보호자, 상담자, 친구되신 예수님처럼 가족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로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어머니의 날에 맛있는 식사와 허그로 그리고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를 읽어드리며 눈물과 감격이 있는 날로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 바랑가이 팀들과 여름캠프**

바랑가이 자원봉사 팀에서 여름 방학을 맞이한 우

리 사역지의 100여명과 함께 뜨거운 예배와 여름학교 행사를 온종일 함께 했습니다. 가뭄과 물부족으로 오는 단수와 절수로 생활에 불편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은 빈민가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는 늘 받기만 하는 줄로 알지만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순간마다 퍼주어야 합니다. 숲속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 아이들과 예배를 마치고 개인 위생관리와 음식의 중요성을 공부하고 예쁜 신발과 새 도시락과 물통도 새학기를 시작할 학용품과 가방도 나누어 주는 그들의 눈 속에 기쁨 가득, 행복 가득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5월 27일

남창수 변현자 선교사 영언, 신희

**기도제목**

- 1 폭염의 날씨에도 영육의 건강을 주소서
- 2 전염병(홍역, 고열)로부터 지켜주소서
- 3 7개 선교 사역지의 재정을 채워주소서
- 4 비가 오지 않는 물부족에 성령의 단비를 주소서
- 5 여전도회 및 청년 여호수아 성경공부에 활력을 부어주소서
- 6 아답지역에 교회 건축을 하게 하소서
- 7 교사 지도자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사역에 동역하게 하소서
- 8 성경, 찬송(100권)을 공급하여 주소서

연락처:

Chang Soo Nam

Lot 3, BLK 4, Herrera St., Area3, Brookside Hills Subd,

Cainta, Rizal 1900, Philippine

한국폰; 010-9176-8806

LG 070; 070-5100-8806

핸드폰; +63-917-100-7349